

어떻게 하면

쉽터 식구들과 실무자 선생님들에게

즐겁고 괴로운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지

늘 찾으면

같은 반드시 가까운 데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지혜를 모아서 큰 힘으로 묶어내는 일만큼

커다란 보람을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글쓰기' 중에서

노숙인 복지 실무자협의회 월간지 '떨꺼둥이'의 창간준비 1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노숙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실무자들의 살아 있는 숨소리를 느낄 수 있는 '떨꺼둥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화이팅!!

-전국실적노숙자종교시민단체협의회 사무국일동

실무자들의 자주적 조직인 노숙인복지실무자협의회 준비위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노실협(준)이 앞장서서 노숙인들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큰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더 큰 힘을 모아나가는 노실협(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숙인 다사서지지원센터 황운성 소장

떨꺼둥이 창간준비 1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글모음 작은책

# 떨꺼둥이

치열한 경쟁논리와  
계산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구겨지고 찌푸린 나의 얼굴...  
장밋이지, 모두 다 흠뻑 날려버리고 싶다.  
어렸을 적 천진난만한 나의 얼굴.  
그 시절 함께 했던 친구가 그립다.  
모두 같이 산니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

떨꺼둥이란?

'의지하고 지내던 곳에서 쫓겨난 사람'을 뜻하는 말로  
'노숙인'보다 더 정확한 뜻을 가진 순 우리말이다.

'떨꺼둥이' 표지글은

신영복 선생님(성공회대 교수)께서

노숙인 복지를 위한 실무자들의 모임을

지지하는 뜻에서

붓글씨로 직접 써주셨다.

2001년 6월 창간준비 1호



노숙인복지실무자협의회(준)



# 노숙인인권문화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1. 기획 의도

- 노숙인에 대한 여론이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 시민의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여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노숙인인권문화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 노숙인에 대한 지지세력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 노숙인도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숙인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 술에 취해 지저분하고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사람
  -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다니는 사람
  - 특별한 시설에 격리, 수용하여야만 자랄 수 있는 사람
  - 시민에게 늘 피해만 끼치는 동정의 가치가 없는 사람

## 2. 목적

노숙인인권문화제를 통해 노숙인에 대한 편견을 바꾸어 나갑니다.  
거리의 노숙인은 소수임을 알려드립니다.  
거리노숙의 모습을 바꾸어 노숙의 이미지를 개선합니다.  
노숙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함께 사는 이웃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노숙인은 사회적인 약자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알려드립니다.  
노숙인에 대한 올바른 사회 여론을 만들어 지지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 3. 기간

2001년 10월 15일(월)~10월 21일(일)

## 4. 장소

대학로, 서울역(예정)

## 5. 기획 프로그램

- 행사 1개월 전부터 실무자가 돌아가면서 야간상담과 야간캠프를 합니다.
  - 거리노숙인과 함께 노숙하고 생활하면서 노숙의 이미지를 개선시킵니다.
- 1일 노숙 체험 : 저녁부터 익일 아침까지 시민들과 함께 생생한 현장 노숙을 체험함.
  -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바람직한 노숙의 방향과 흐름을 찾음.
  - 시민들의 노숙 체험을 통해 노숙에 대한 관심을 높임.
- 다. 그 외 거리음악회, 거리연극, 거리행진, 서울역난장, 퍼포먼스, 부스판매, 심포지엄 등.

## 6. 기대 효과

- 가. 노숙의 이미지를 바꾸어 노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 나. 올바른 사회여론을 형성하여 사회 정책적인 문제 해결의 방향을 찾는 계기를 만듭니다.

## 글차례

### 여는 시 • 2

우리들의 모습  
—김수재(방화11 복지관)

### 기획 • 4

신자유주의와 노숙인  
—김광혁(동작이수 복지관)

### 실무자 생각 1 • 8

지지해주고 기댈 수 있는 자리  
—조상윤(신당 복지관)

### 실무자 생각 2 • 11

사랑하고 존경하고픈 마음  
—이상철(가양4 복지관)

### 실무자 생각 3 • 14

희망의 집 만 2년을 돌아보며  
—김양근(번2 복지관)

### 실무자 생각 4 • 17

무림말학 바람지존의 고뇌!  
—이정호(등촌1 복지관)

### 특집 • 21

노숙인 복지운동의 과제와 노숙인 복지 리더십  
—이운주원(아침을 여는 집)

### 실무자 설문조사 • 28

내뱉는 말 • 36  
실무자 쓴소리

편지 한 통 • 40  
—국신호(남부노인복지관)

### 노실협을 준비하며... • 42

—송영팔 노실협준비위원장

### 노실협 새 소식 • 44

### 노실협 소개 및 가입 방법 • 46

### 노실협 지부 조직 • 48

## 우리들의 모습

김수재 방화 11복지관/사회복지사)

가진 者 고개 높이 쳐들고  
못 가진 者 사람 취급 못 받는 이 세상·이 땅  
내가 살고 있는 이곳·우리들

부끄럽지 않은가?  
나·너·우리!

거세게 밀려드는 초국적 자본  
구조조정 아래 짓밟히는 노동자 민중  
허리띠 졸라매라, 날마다 다그치는  
정부·위정자·악덕 업주·언론...

멋 떨어지게 살고싶다  
마음 고운 아내도 얻고 싶고  
병아리 같은 아이도 두 명 낳고 싶다

그리고  
냄비에 라면 끓여 먹더라도  
힘껏 소리지를 수 있는 단칸방 내 집이 있으면  
더욱 좋겠다

욕심이 또 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  
아무 것도 없다

지나친 욕심인가!

소박한 노동자  
나·너·우리의 꿈

한숨소리 들려온다  
피눈물이 쏟아진다  
복장이 터진다

노동자 민중의 고통과 신음  
길바닥에 내동댕이쳐진 무수한 사람들

목마르다

옳은 걸 옳다고 소리치는 목소리 그림다  
생동하는 정의를 보고싶다  
상처가 더 커지기 전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모든 걸 포기해야 하나!

...  
...

작지만 생동하는 빛이 있다  
힘찬 젊은 목소리 있다

멀지만 꿈을 키울 수 있는 세상  
희망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모습  
밝은 세상  
웃음 짓는 사회 오리라

이제 시작이다  
함께 하자

노·실·협!





## 신자유주의와 노숙인

김광혁 정책팀장(동작이수복지관/생활지도사)

우리나라에서 노숙인이 노숙에 이르게 된 경제, 사회적인 배경과 IMF체제 이전의 신자유주의와의 관계성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 위기(IMF체제)의 원인은 관치금융과 정경유착, 비합리적 차입경영구조, 기업의 경영 투명성 결여 등이었으며, 또한 고속성장의 개발독재 모델에는 사회적 취약계층(under class)을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 안전망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얽혀 있는 개인의 문제들로 인해 단기간에 매우 많은 노숙인의 증가를 보여왔던 것이다. 그러나 IMF체제 이후에도 노숙인은 줄지 않고 있으며 IMF체제 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는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노숙인들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경계하며, 이것이 끼치는 파급이 얼마나 부정적이기에 경제학자들마저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대안이라고 하는 것일까, 라는 물음을 가지게 된다.

대공황은 시장의 조화로운 원리가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의 신화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이때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성장은 자본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에 수정의 압력을 가했다. 이로써 나타난 것이 케인즈주의다.

케인즈주의는 자본주의 자체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케인즈는 실업의 원인을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보고, 정부가 재정적자를 무릅쓰고 공공투자(복지 지출)를 증가시키면 유효수요가 증가하고, 생산량을 증가시켜 고용을 증대시키며, 궁극적으로 국민소

득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반면 호경기 때 불경기 때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복지 지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는 국가의 능동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공황을 방지하고 완전고용을 달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 쇼크, 스테그플레이션 등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생산 투자가 저하되면서 케인즈적 수요경제가 위기에 처하였다.

화폐와 노동력의 국가 관리가 불황의 원인이며 화폐와 노동력도 시장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논리다. 신자유주의는 좌파 자유주의 또는 복지자유주의라 불리는 사회민주주의의 기틀이 되는 롤즈(Rawls)의 정의론에 입각한 분배적 평등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하면서, 자유시장주의적 최소 국가론을 말한다.

신자유주의의 정책은 '세계화', '자유무역주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기업의 민영화', '경제에 대한 정부 간섭의 축소', '무역과 자본 이동의 자유화', '복지예산의 삭감', '노동자 권리 축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리해고 등의 대량해고', '전통적 가족 가치 강조' 등으로 대표된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이라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시장이 불완전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러나 여전히 제대로 기능하는 시장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신앙으로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불안정성인 이윤에 대한 무한 추구와 자본 축적의 논리이며, 여기에 세계화의 흐름은 초국가적인 거대 국제 금융자본으로 하여금 선봉에 서게 하였으며, 특정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정리해고, 파견 노동제, 임시직과 성과급 제도의 확대를 통해 노동자를 파트타임,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시켰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노동자들의 몰락과 빈곤화다. 여기에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통한 사회복지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며 복지 종속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20%의 소수를 위한 80%의 희생을 강요하는 소수에 의한 소수를 위한 정책(20:80의 사회)이며, 반 노동정



책이며,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계층 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요컨대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의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과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혹은 사회주의의 국가 통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지만 위와 같은 많은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돈 놓고 돈 먹기의 이윤추구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길 뿐 인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경계하고 자본주의의 위기의 대안으로 삼고 싶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IMF체제 이후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급속히 밀려들어오고 있다. 거대 금융자본을 앞세운 이들은 자신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신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 주장들을 관철시키고 있으며, 이제는 그들의 영향권 안에 완전히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은 서릿발 같은 구조조정의 격랑 속에서 대량해고에 맞서 미처 싸울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두 손을 들고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고용 환경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저학력, 저소득층에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극빈계층이 증가하고 노숙인들이 증가하였다. 우리에게는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이 너무나도 미비하다.

신자유주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갖추도록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은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안전망의 미약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하였다. 신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 딱하고 한심스러웠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정도인데 비해 복지 수준은 바닥을 헤매고 있으니 말이다. 이들의 기준은 GDP 대비 30%~40% 이상을 복지예산에 투입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5%(GDP 대비) 수준이다. 문제는 신자유주의 덕분에 어느 정도의 사회 안전망을 갖출 수도 있으나,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다.

또한 국내 일부에서(언론도 포함) '세계적인 추세가 사회복지 예산의 삭감이다' 또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복지 부문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실익은 신자유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진정 문제다. 복지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 얼치기들이 아직도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는 아직도 성장 제일주의를 18번 곡으로 삼는 시대 지체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탈을 쓰고 아직도 과거의 개발 독재를 말하고 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다.

최근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노라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으며,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생산적 복지'는 시장만능논리로 추진하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회불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노숙인 복지에 있어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지금부터다.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 지속되어서 노동자들의 빈곤화가 가속될수록,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 허술할수록 사회와 가족의 해체 속도가 빨라지고 결국은 노숙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사실 노숙인의 문제는 사회구조나 개인, 어느 한 가지로 설명될 수 없는 사회구조의 결함과 개인적인 변이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를테면 경제적인 문제, 정신 질환 등의 개인적인 병력, 가족 해체, 개인의 가치관, 윤리의식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등이 영향을 끼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경제 틀이 신자유주의와 같이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경쟁타락의 후유증을 남기고, 개인과 사회는 경쟁부적응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노숙의 길로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빈곤화의 과정 자체가 흠리스의 구조적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인도주의적이고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인간 중심의 자본주의가 그리운 지금이다. ■



## 지지해주고 기댈 수 있는 자리!

조상윤(신당 복지관/생활지도사)

노실협 창간준비 1호에 글을 써달라는 급작스런 청탁을 받고 반사적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몸으로 때우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글쓰기는 도무지 하고 난 뒤 후회만 되어 망설여졌습니다. 원고 마감 며칠 전인데 저렇게 쫓기듯 부탁할까? 하는 걱정에 또 수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무엇을 써야 하나? 무엇을 쓸까? 고민, 고민을 해 봅니다. 현재의 저를 가감 없이 쓰기로 하고 이곳에 처음 오던 날을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부터 해보고 싶던 직업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 가운데 하나가 학교 선생님이나 기숙사 사감입니다.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는데 어느 날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숙인 쉼터 담당 실무자를 뽑는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과 병원에서 일하기로 했으나 이 일은 지금이 아니면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경쟁률은 처음입니다. IMF로 명예퇴직을 포함하여 구직자와 실직자들이 많은 때였거든요.

정말 많은 지원자들 가운데 최종면접에 남은 사람은 현재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이동근 선생님과 이름도 모르는 어떤 분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이 선생님이 미안하다면서 악수를 청하더군요. 정말 심안했습니다.

다시 병원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북부복지관 과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중구에 있는 신당복지관에서 사람을 뽑는데 추천을 해주시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출근한 신당복지관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1년여를 그렇게 행복한 웃음만 짓고 다녔습니다.

신부님을 비롯하여 세심하게 챙겨주시면서도 엄격하신 수녀님, 그리고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무엇보다도 잊을 수 없는 정성기 과장님. 부족한 능력 탓에 두려워하던 제게 언제나 칭찬과 격려로 채워주던 분들이 있었기에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칭찬과 격려는 우리 희망가족에게도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유일한 걱정은 '내가 과연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이런 행복이 얼마나 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척 편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도 모르지만 외관상 보여지는 쉼터의 풍경은 다른 쉼터와 비교해서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알콜 중독된 가족의 주기적인 난동, 가족간의 폭력, 지병으로 인한 사망, 계속되는 새로운 가족들의 입소, 잠시 눈을 떴기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정원이 다 채워졌는데도 새벽에 입소시키라는 명령과 함께 술에 찌들어 쓰러지신 분을 남기고 가기도 하고... 그래도 저의 생활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무시간이 끝나도 집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바빴지만 그런 일상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새로운 입소자가 와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생활 규칙을 잘 알고 계시고, 심한 냄새가 나는 분도 없고, 내가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잘 알아서 하시는 분들이라 업무량도 어느 정도 줄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4대 보험에 가입도 되었는데 힘들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다닙니다.

3가구의 가족입소자 8명, 중풍환자 2명을 포함한 60대 4명, 상습음주가족 등 4명, 총 18명의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건 초기와 비교해 볼 때 힘들게 할 그 무엇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저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내내 마음속에 담고 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실무자 처우개선문제(알맹이 빠진 4대 보험 가입 말고), 정체된 입소가족 문제, 기관과 나와의 관계 설정, 풀어진 나의 마음 자세...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해 보게 된 것은 위에 이야기한 것들도 해당되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업무적으로 혹은 사회생활에서 내가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 "당신이 그랬다면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했을 거야. 당신이니까 그만큼이라도 해낸 거야" 하는 지지를 보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노실협이 그런 부분을 채워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노실협이 와서 해주지 않겠지요. 내가 움직이고 많은 실무 선생님들을 만나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선생님들과 나눌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희망가족들이 컴퓨터에서 신체의 로피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

사회로 나가듯 실무자 선생님들은 이곳에서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한다는. 내가 힘들 때 옆에 누군가 있어서 기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실무자 선생님들의 행복한 웃음을 기원하며... 



## 사랑하고 존경하고픈 마음

이상철(가양사 복지관/상담원)

'희망의 집', 노숙인 복지, 그리고 자활. 이런 글을 쓰려니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참 많은 일들이 떠오릅니다.

경상도 멋쟁이(?)가 촌티 잘잘 내며 서울역에 내리던 날, 고속버스 운전기 사님들이 쓰는 갈색 선글라스를 우아하게 벗으며 노숙인 복지와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운명적인 만남의 계기는 솔직히 제 자신이 노숙인 복지사업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물론 제 주변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제대로 알고 있으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어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방을 싸들고 촌에서 올라와 '희망의 집'에 입성했습니다.

진정한 노숙인 복지를 실천해 보겠다고 젊은 혈기를 불태우며 입성했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

니다. 매일 밤마다 음주와의 전쟁이 일어났고, 이런 전쟁으로 지새운 밤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는 음주상담은 피하라고 배웠건만 노숙인 복지상담에 음주상담은 매일 있는 일이고, 먹살 잡히고 맞지 않으면 편히 쉬는 날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급기야 한 아저씨가 제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 입 다물어!"

복지관 상담원이란 직업은 입으로 먹고사는 일인데 입을 다물라니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상호 이해와 신뢰감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저씨들 곁에, 바로 그들 옆에 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분 말씀대로 입을 다무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희망의 집' 실무자로 지금까지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지만 계약직이어서 소속감이 떨어지고, 소속감이 떨어지니 당연히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곤 합니다. 노숙인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인지도도 아직은 낮은 데다가 '희망의 집'이라는 곳이 처음 복지관이 만들어질 때 의

무적으로 생긴 곳이 많아 일부 '희망의 집'은 복지관의 부수적인 존재 정도로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명절은 고사하고 주말에도 복지관에서 숙식하며 집에 내려가지 못합니다. 집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까지 내가 진짜 노숙인 복지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또 그렇게 생활하는 줄 압니다.

주말도, 명절도 모두 아저씨들과 함께 지내며, 무슨 일을 하든 아저씨들이 먼저 생각나니까요.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도 아저씨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라도 보일라치면 제 일을 뒤로 미루고 먼저 아저씨들과 연결시키고, 좋은 영화를 보다가도 아저씨들과 함께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니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아저씨들이 내 마음의 연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연인이 뭐 별건가요? 좋은 음식, 좋은 곳, 좋은 생각과 마음을 나누고 싶어진다면 그런 사이가 바로 연인 사이 아니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노숙인 복지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많은 실무자 선생님들의 직업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근무환경이나 경제적인 대우 등을 따져보며 저 자신에 대한 복지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는 실무자들의 생활이 안정되어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도전 의식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 절적인 향상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많은 실무자들은 이런 본인의 복지에는 마음 쓸 여유도 없습니다. 그저 아저씨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희망의 집'을 기반으로 희망식구들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남다른 분들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과연 '희망의 집'에서 1년을 보낸 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다음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수 '희망의 집' 자활사례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발표하든지, 아니면 다른 '희망의 집' 우수 자활사례를 찾아서 돌아다니든지...

끝으로 저는 저를 포함한 '희망의 집' 실무자와 아저씨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강을 따라 걷는 사람은 강을 건널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손을 잡고 강을 건너는 그 순간 저는 그 동안 마음에 담아 두었던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가족들과 실무자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으려 해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고 존경하고픈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2]





## ‘희망의 집’

만 2년을 돌아보며...

김양관(번2 복지관/생활지도사)

2년 전인 6월, 여름에 나는 생각지도 않은 부탁을 받았다. 노숙자 숙소인 ‘희망의 집’에서 근무해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생각도 해보지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NO!! 했다. 그것은 관심 밖에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시로 반 년 정도만 해보라는 말에 그만 발을 들여놓고 말았다. 막상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나니 서너 가지 주의를 주었다. 은근히 겁을 주는 내용들이 많았다.

1999년 7월 4일, 드디어 희망가족들과 첫 대면을 했다. 첫 인상은 옆 동네 형이요, 친구며 동생이었다.

나는 무척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었다. 이분들이 왜? 노숙의 길로 접어들어야만 했는가?

차차 알게 된 일이지만, 다수가 기초적 생활근간이 없었다. 1차 사회의 기본인 가정생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가정이 있었다라든가 불행한 가

족관계에서 사회성을 형성하지 못한 결과였다. 그 밖에도 경제사정 악화로 인하여 가정파탄과 함께 폐인이 되어 길바닥에 나앉게 되거나 채무나 알콜 문제로 가족에게 버림받는 등, 극소수 이긴 하지만 인성 파탄자와 범죄자에 이르기까지 노숙하게 되는 과정은 다양했다.

이런 희망가족들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연민의 정도 느꼈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듯한 희망가족을 볼 때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었다. 사람이 이렇게 순할 수도, 치졸할 수도, 비열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연히 알았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갔고, 6개월이 지나니 이 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되었다. 상부에서는 재활, 자활,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질 않은 채, 어느새 1년이란 세월이 훌쩍 흘러 버렸다.

재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도 하고, 성공사례도 들려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보았지만 신통치 않았다. 일부 희망가족은 내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것 같고, 백혈암과

투병중인 지은이까지 내세워 모금과 헌혈도 하게 해보았지만, 희망가족들은 실낱같은 변화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이 일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어느 날 문득, 우리 희망가족들이 받기만 하는 습관이 생겨 너무 나태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누는 생활도 희망가족들에게 자극이 될 듯하여 자원봉사와 후원금 모금을 시작해 보았다. 첫 달과 두 번째 달은 참여가 높더니 그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해지고 있다. 나눌 수 있는 생활이 습관이 된다면 자활하는 것 못지 않게 좋은 사례가 되리라 본다.

어쨌든 희망가족들은 사회의 약자다. 약자를 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회조직에서 벗어나 길거리로 나앉은 노숙인들을 위해 최소한의 체계화된 사회 지지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무 때나 원하기만 하면, 잠 잘 수 있는 곳, 식사할 수 있는 곳, 씻고 쉴 수 있는 곳 등이 갖추어져 그나마 그들의 고민을 덜어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자활을 위해 만 2년 동안 수많은 사

례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것은 희망가족들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서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코, 취업만이 능사가 아니며, 이들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삶의 보람을 찾게 해주는 것도 성공적인 재활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희망의 집’에서 만 2년이라는 경력이 쌓였다. 복지관 직원들은 나에게 노숙인 기질이 보인단다. 사망감도 없이 말 그대로, 임시로 ‘희망의 집’을 맡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내가 희망가족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잘 모르겠지만, 되고 있다면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일 것이다.

언제 이 일을 그만 두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그들을 통해 크게 배운 것이 있다. 노숙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어려운 이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 2년째 물질과 정신으로 돕기도 하며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붙여준 별명이 팔도잡놈인 참으로 소중한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서로를 도와주고 나누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름도 한나눔으로 고치고, 콩밭도 하나 떼어서 가난한 운동권 노동자에게 나누어 준 친구다. 역학을 하며 우리가락에 푹 빠져 사는 친구에게 나는

늘 인생을 배웠는데, 그 친구 덕택에 우리 희망가족들과 조금이나마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421**



### 무림말학 바람지존의 고뇌!

이정호(등촌1 복지관/생활지도사)

정보화시대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나는 나 스스로도 과연 이 강호에서 제대로 생존해 나갈지 의문스럽다.

몇 가지 안 되는 초식원리만이라도 제대로 익힌다면 최소한 문서작성만이라도 다른 직원 분께 아쉬운 소리는 하지 않을 수 있건만...

매순간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다시금 반복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직면할 때면 정말~ 징~하다. 그래서 요즘엔 나름의 변화 노력에 치열한 몸부림을 해본다. 하지만 여전히 세포 하나 하나에 깊이 깊이 입력된 집요한 수구(?)의 앙탈엔 매번 두 손을 들고 만다. 그럴 때마다 어찌 좌절 없이 무림비기(?)를 얻을까! 하고 위로 할 뿐이다.

물론 그 순간만은 사과 중의 사과인 한나라 문파의 정책이 수궁이 갈 때가 있다. 보이지 않는 이 비정한 투쟁의 역사를 알 길 없는 지인들은 논자의 이러한 불멘소리에 그저 허접한 명분쯤

으로 일축하는 언론폭력으로 일관할 뿐이다.

“그 게으른 탓, 그만해”

그러나, 일견 정당해 보이는 그들의 논리엔 엄청난 괴변(?)이 숨겨져 있음을 조금만 궁리해 봐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컴퓨터 타자에 익숙지 못한 나로선 그나마 초급무공의 하나인 독수리 타법을 갖 벗어난 공력으로 작성하는 각종 문서(사실 '희망의 집' 문서가 객관적으로 그 양이 많다는 것은 아님)로 인한 내공 소모는 범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물론, 그때마다 동료직원이나 희망가족 분들께 기술적 자문을 구해야만 되는 슬픔이 있다.

“어떻게 선생님은 항상 같은 것을 매번 물을 수 가있어요?”

으익! 이 수모!(난 그때마다 위대한 공자님의 경구를 들어 태연히 반박을 하곤 한다. 진정 무지를 아는 자야말로 참된 앎이 아니겠소!!)

누군들 그 곤혹스러움을 모를까마는 돌아서면 모든 게 원위치로 돌아가고 마는 근원적 회귀본능(?)엔 나도 그 네들도 그저 놀랄 뿐이다.

그렇지만 근래 빈번히 등장하는 괴



주문에 시달리는 것에 비한다면 그 수모쯤은 차라리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른다. 도대체가 그 뿌리를 알 수 없는 괴주문의 정체는 '이 메일'이라는 별호를 가진다고 한다. 측근의 브리핑에 의하면 일면 이론상으론 이해가 되지만 도대체가 심정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생소하기가 이를 데 없다. 그저 전서구로 날릴 때가 어제 같더니만...

더구나 전대미문의 공력으로 강호를 흔들었던 팩스가(!)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고 하니 무림말학의 신분으로 그저 두렵기만 할 뿐이다.

그러나 소위 관리직원의 체면이 있지 어찌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섬뜩하게시리 애절한 여성살수의 괴주문에 '난 몰라요' 하고 무책임하게 비무(!)를 회피한다면 그 어찌 낯뜨거운 장면이 아니리요!(손속에 사정을 두어 한 수 접어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더구나 나 개인 차원의 명예를 넘어 문파의 체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니, 물론 그러한 괴주문의 과대요구는 나의 과체질에 여러 모로 시달리는 최공의 몫이 되고 만다.

그때마다 얼굴 뺨뺨이 들고 당연한 듯해 보지만, 내 어찌 자존심이 없으리

요! 그 사소한 것도 처리하지 못함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묘한 눈빛을 느낄 땐 그저 근거 없는 분함(!)에 떨어야만 했다. 그리곤 자학에 가까운 다짐을 하곤 한다.

'그래! 이제 변해야 해!!'

변화와 개혁이 황실과 조정대신들의 공허한 메아리만은 아니야! 이제 그저 막연한 타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청산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논자의 이러한 과체질이 한갓 세외마공에 불과한 정보화 세계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오히려 명백히 정보화 세계에 대한 실체를 나름의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본능적

거부에서 비롯되었음(?)을 천명한다.

그것은 분명 이 시대의 마공(!)에 불과하다는 야릇한 생각이 그것이다. 왜냐구? 정보화란 사이버 세계를 향한 사전 정지작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이버란 명백히 가상세계요, 환상의 세계다. 그것은 명백히 현실의 실체가 부정됨으로써 가능한 요상한 무공이다. 상대성을 넘어 단순한 차이로만 구별되는 세계!

과연 현실과 가상이 혼재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나마 정도문파의 위명이 꺾일만 유지한다 하지만 아직은 이 강호에 건재하기에 망정이지 이대로 점차 가상세계의 공간이 확대된다면 현실세계의 엄연한 사실적 가치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이 될 것이다. 현실과 가상은 그대로 꿈과 현실의 구도가 되고, 그 구도를 좀더 분명하게 대립시켜본다면 '꿈은 무엇이고 꿈에서 깨어남'은 무엇인가? 로 극명하게 표현될 수 있을 터이다.

만일 장자학파의 '호접몽' 혈겁(!)처럼 꿈과 현실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던 사파의 무리들은 현실의 모든 것이(정파의 광명정대한 명분) 무의미해지는 것으로 밀어부칠게 뻔하지 않는가! 그렇게 된다면 '가치'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존재와 가치에 대한 정도문파의 노력과 열정은 만용에 불과한가? 어차피 모든

게 환순간의 꿈일 뿐이라면...

아마도 이 강호는 혈겁을 넘어 극단적인 회의주의로 물들게 될 것이다. 오직 약육강식이 논리 아닌 논리로 지배될 때 민초의 노고는 어떠한 것이며 또한, 그 삶이 얼마나 황폐화될 것인가?

갑자기 논자의 수준이 광오하리만큼 업그레이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강호에 어설프게 휩쓸려 놀다보면 주위 듣는 게 있는 법이다. 그 두서 없는 얕이 심오함을 넘어 가끔씩 광오함에 이를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바이벌은 절대 가능하지 않음을 미리 전제해 둔다.

요즘 그나마 위안을 삼는 것은 '희망의 집', '희망가족' 이니 하는 신비문파의 출현과 팔목할 기재들의 도발적인 발기가 그것이다. 어쩌면 그들의 비전 무공인 '희망전도법'(강호는 줄여서 희망이라고만 한다)을 극성으로 전개한다면 혈마의 '천마구음마장'을 능가한다고 짐작되는 사이버 마공의 본격적 천하정복의 야욕인 정보화공작을 무력화시켜 내지 않을까, 하고 사료된다. 너무 예민한 반응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진다면 그 순간 그는 나 바람지



존의 적이 되고 만다. 그 필링~의 실체를 나 또한 알 길이 없다. 단지 천재적 예지능력쯤으로만 짐작하고 있다. 인간의 알팍한 이성능력으로 알려고 하거나 의문을 가질 때 무진장 다치게 되는 것이 가끔씩 이 강호엔 있으니까. 그러니 그냥 믿어야 된다. 믿으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니, 마공을 퇴치하고자 한다면 마공을 익혀야

한다는 이 역설적 진실!!(이 진실을 모르는 무지몽매한 무림 동도들의 탄압과 질시는 '책임'이라는 훌륭한 방어기재로 능히 헤쳐갈 수 있다 하나, 오직 나만이 그 첨단 엽기성 마공을 퇴치할 수 있다고 믿는 정치적 쇼맨십!!)

"음" ...

그것이 작금, 이 무림말학 바람지존의 고민과 번뇌의 실체인 것이다.

그러나!??\*\*



## 노숙인 복지운동의 과제와 노숙인 복지 리더십

이윤주원 교육팀장(아침을 여는집/생활지도사)

"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 사람의 생명이 호흡이 필요하듯, 사회의 생명을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해 왔다. 신뢰는 사회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약속한 사람들을 신뢰하였다."

- 비노바 바베

### 신의 아들 하리잔 '노숙인'

간디와 비노바 바베는 인도의 카스트제도(브라만/크샤트리아/바이사/수드라)의 가장 아래 계급인 수드라보다도 더 천대받는 불가촉천민을 신의 아들이라는 뜻인 '하리잔'이라 부르며 그들을 섬기며 평생의 삶을 일구었다.

바로 그 '하리잔'이 21세기 한국의 서울에서 시민들의 편견과 외면 속에 '노숙인'이라 불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더럽고 위협하며 술주정뱅이인 그들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것이 한국 시민사회의 현실이다. 그럼 21세기 '하리잔'의 인권, 주거, 의료 등 다양한 복지적 가치는 실현될 수 없는 난제(難題)인 것인가.

더군다나 이 '하리잔'들의 자활은 상상만 해도 불온한 사상인 것인가. 그렇다. 노숙인의 자활은 하나의 불온한 사상이자 상상이다. 노숙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누구나 '하리잔'들의 자활을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의 장벽에 막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노숙인 자활'은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한 꿈에 머물고 말 것인가.



**상상력. 하나-노숙인 복지의 과제로서 인권문제**

지난 군부독재시절은 물론 현재까지도 한국사회는 인권의 사각지대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은 무관심과 편견에 묻혀 사회적 담론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소수자로서 노숙인의 인권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 주류의 목소리에 묻혀 기지개도 펴지 못하고 있다.

노숙인 복지의 나아갈 길이 단순한 퍼주기식 복지를 지양한다면 당연히 노숙인 인권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내 용	전혀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중간정도	다소 그럴 것이다	매우 그럴 것이다
맘만 먹는다면 일자리를 얻을 수도 있을 텐데 노숙인들은 일하기를 싫어한다	3%	17%	17%	50%	13%
노숙인들은 대부분 술주정뱅이다	2%	21%	19%	45%	13%
노숙인은 위험하지 않다	4%	28%	29%	29%	10%
노숙인은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다	3%	6%	44%	44%	36%
정신질환 노숙인은 별로 없다	5%	34%	26%	26%	7%
노숙인이 있으면 인근지역에 있는 상가 손님이 줄어든다	1%	11%	48%	48%	23%
노숙인은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이다	19%	56%	5%	5%	3%
노숙인들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이 망가진다	3%	19%	43%	43%	16%
노숙인들은 무책임하다	2%	16%	44%	44%	16%
노숙인들은 대부분 돌아갈 가정이 없는 사람들이다	7%	39%	24%	24%	4%
노숙인들은 대체로 젊다	5%	36%	9%	9%	4%
노숙인이 주변에 있으면 집값이 떨어진다	5%	19%	43%	43%	10%

〈표1〉 노숙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출처: 다시서기 2001년 5호)

국가와 가족주의 및 지역이기주의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하는 편견, 한 가지 사건 혹은 사실이 전체의 사건 혹은 사실로 비약되어 당하는 편견 등이 노숙인 인권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즉, 노숙인 인권의 부재는 현상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민이 노숙인에게 갖는 편견으로 드러난다(2001년 이윤주원).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노숙인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술주정뱅이, 정신질환 집단, 위험 집단 등 전혀 사실과 동떨어진 채, 극도로 배타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다.

노숙인에게 있어서 '인권'은 아주 낮은 개념이다. 언론에서조차 노숙인 인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룬 기사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노숙인 신상관련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들의 사회복지에 도움을 주겠다는 우스꽝스러운 발상에도 언론은 사실성 보도에만 머물렀지 이 신상관련자료가 어떻게 노숙인 인권에 침해를 가져올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말처럼 노숙인 복지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낯설고 무관심한 영역인 노숙인 인권문제를 노숙인 복지의 우선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은 물론 지역사회 안에서 편견을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전개가 필요하다.

**상상력. 둘-노숙인 복지의 과제로서 주택문제**

인간에게 있어 주택은 너무 기본적이고 익숙한 것이라 그 의미를 따지는 게 새삼스러울 정도다. 하지만 노숙인들에게 있어 '집'의 의미는 또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 노숙인(homeless)은 말 그대로 집(home)을 잃은 상태를 지칭한다. 미국의 경우 1980년 이후 집(home)이란 사람이 들어가 잘 수 있고, 낮선 이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라 합의되고 있다(1998년 도시연구소). 하지만 노숙인은 이런 안정적인 기반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다. 집(home)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사적 공간, 가족의 사회적 공간, 위협으로



부터의 안정적인 공간, 경제적 지위 등 모든 의미를 노숙인은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노숙의 주된 원인을 놓고 볼 때 우선적으로 빈곤의 심화와 주택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 주택가격이나 임대료가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소득이 적은 계층이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소득의 감소와 실직으로 중산층 이하가 하향 이동한다면 전 가족이 방 한 칸에 거주하는 저소득 임차가구는 갈 곳이 없게 된다. 더구나 가족의 해체를 겪게 된다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거리생활을 택하게 된다(2001년 박신영). 이렇듯 빈곤과 주택문제의 심화는 노숙인의 발생으로 이어진다. 거꾸로 말하면 빈곤과 주택문제를 해결해야만 노숙인 복지를 향상시키고 자활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말하는 실업이 노숙의 근본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서도 알 수 있다.

현재 노숙인의 주거공간의 제공은 종교시민단체와 복지관에 설치된 쉼터와 자활의 집 정도다. 하지만 노숙 당사자들이 쉼터와 자활의 집을 '집(home)'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영국의 예를 보면,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임시수용소나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정부에 적절한 주거를 요청하여 인정받은 사람을 homeless로 보고 적절한 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을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로의 집중을 방지하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한국의 현실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숙인 복지 현장 실무자들은 물론 한국의 정책당국도 노숙인 문제의 주요 원인을 주택문제로 맞추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즉,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주거보장이 사회안전망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의 확보와 임대료보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상상력 셋-노숙인 복지의 과제로서 의료문제

노숙인들의 의료서비스 문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열악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에서 누락된 노숙인들은 정당한 제도적 방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아닌 편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001년 경우 서울시 노숙인 의료비 예산이 10억이며, 이 예산으로 서울시가 지정한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물론 병원진료과정에서 '노숙자'라는 낙인이 찍힌 진료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하며, 이는 서울시가 지정한 약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나마 '희망의 집'에 입소해 있는 노숙인들은 병원의 문턱 정도는 밟아볼 수가 있다. 하지만 거리 노숙인들은 정말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데도 주거지가 없거나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완전히 의료복지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더구나 결핵, 감기,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 거리 생활로 인한 질병 발병률과 전염의 위험도도 높은 상황이지만 아직도 거리노숙인들을 진료해 주는 병원은 없는 것은 물론 의료보호가 전무한 상태다.

또한 넓은 의미의 노숙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쪽방생활자들도 의료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특히 쪽방생활자의 대부분은 단독세대로 방문간호가 시급히 필요한 상태이나, 의료보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부족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도 요셉의원, 인의협 등은 의료 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재정지원이 미약하여 제한적인 진료만을 제공하거나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의료 사각지대의 지원체계를 시급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노숙인 및 사회저소득층에게 의료보호 수급권을 확대하여야 한다.

## 또 하나의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길!-전망을 찾아서

낮은 곳에 임하여 성찰과 평화의 혁명을 꿈꾸는 노숙인 복지 현장의 모든 활동가들의 상상력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및 노숙인 복지의 새로운 리더



십을 만들어 가야한다. 미래를 주목하고 행동하는 전략적인 지도자가 되어야만 현실의 장벽을 뚫고 '성찰과 평화의 혁명' 그 열매를 성글게 할 수 있다.

노숙인 복지의 주된 과제인 인권, 주택, 의료문제는 단순한 힘의 논리와 정치적 논리로만 풀릴 수 있는 과제들이 아니다. 세계와 인간을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지닌 개인들이 모여 조직적인 리더십을 형성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및 노숙인 복지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노숙인 복지의 리더십이 추구해야 할 방향 즉, 전략적 지도자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간략하게 열거하도록 하겠다.

**첫째, 전략적 지도자는 해안(Vision)을 가져야 한다.**

해안(Vision)이란 볼 수 없는 것,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보는 것이다. 노숙인 복지의 전략적 지도자의 역할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보지 못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다.

**둘째, 전략적 지도자는 세계적 현실문제를 잘 파악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노숙인 복지의 전략적 지도자의 역할은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고질적인 문제인 심화되는 빈곤·인권유린·지구생태계파괴 등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인 국가조직, 국제조직 그리고 정부체제 등의 구조적인 개편흐름·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지구생태적 문제에 대한 높아져 가는 의식·다문화적 가치관 및 생활양식의 세계적인 형성 등을 잘 포착해야 한다.


**셋째, 전략적 지도자는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적 사고와 행동을 해야 한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절대로 아니다. 감성에 쉽게 흔들리고 행동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발생할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을 감성에 맡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지도자는 전략의 비전과 철학을 밑바탕에 깔고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는 전략적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

**넷째, 전략적 지도자는 정보기술활용 및 가치혁명을 계속해야 한다.**

물론 인간적 가치가 가치혁명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경쟁력 강화, 외국문물획득, 외국어 공부 등에 편중된 세계화 정책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가치를 행동의 바탕에 정착시키는 인간적 세계화를 추구해야 한다.

**다섯째, 전략적 지도자는 일상 생활 속에서 사회 변화를 위한 행동을 개인의 차원에서 실천해야 한다.**

인간적인 세계화를 위해 일상에서 사회 변화를 동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참고문헌〉

1. 이운주원, 2001, 「언론에 비취진 노숙인」, 전실노협 「희망나눔」 7호
2. 박신영, 2001, 「노숙자 문제, 주택문제로 보아야 한다」, 도시연구소 「도시와 빈곤」 49호
3. 다시서기지원센터, 2001, 「시민들, 노숙인을 어떻게 생각하나」,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다시서기」 25호
4. 국신호 외, 2001, 「노숙인 쉼터 실무자 역량강화와 노숙인 지원사업 방향모색」, 2001년 실무자워크숍 자료집
5. 임길진, 2000, 「새천년의 도전과 전략적 지도자의 길」, 2000, 전국의환경활동가워크숍 자료집
6. 위정희 외, 2000, 「의료보호제도 개선 및 의료 사각지대 지원방안」



노실협(준) 편집팀

노숙인 복지 실무자협의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노숙인 복지 사업의 개괄적인 여론들을 수렴하기 위해 '희망의 집' 실무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1명의 실무자 선생님들이 참여했고, 기간은 2001년 6월 초순부터 6월 중순까지 보름 정도에 걸쳐 조사되었다. 그런데 전체 통계와 항목별 통계가 별반 차이가 없어, 실무자 여론의 보편성을 가지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6문항을 통해 실시된 내용을 꼼꼼히 꼬집어 보고, 노숙인 복지의 대안을 생각해 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리라 확신한다.

### 1. 노숙인 복지 실무자협의회에서 해야 할 일은?

노숙인 복지 실무자 협의회에서 해야 할 일은 '쉼터 제도화 및 유형화'가 가장 많은 의견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실무자 내부역량강화', '실무자 처우개선' 등의 순으로 나왔다. 그런데 '노숙인 인권'에 대한 부분은 실무자들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노숙인 인권'에 대한 부분은 실무자들의 여론부터 제기하여 공론화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기관별로 보면, 복지관은 '쉼터 유형화와 제도화'에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는 반면, 종교시민단체는 '실무자내부역량강화'에 조금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직책별로는 생활지도사가 '실무자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경력별로는 평균적인 의견이 나왔고,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내부역량강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 복지 실무자협의회에서 해야 할 일은? (중복 문항)

항목	분야	① 노숙인 인권					② 쉼터 제도화 및 유형화		③ 실무자내부 역량강화		④ 실무자 처우개선		합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기관별	복지관	30명	12	19	17	16	1	65					
	종교시민단체	9명	4	3	5	2		14					
	기타	12명	4	10	6	6		26					
직책별	사회복지사	14명	6	8	9	5		28					
	생활지도사	19명	7	10	10	12		37					
	상담원	8명	4	7	2	2		15					
	기타	10명	5	7	4	8	1	25					
경력별	1~6개월	9명	5	5	3	5	1	19					
	6~1년	7명	3	4	3	3		13					
	1년~1년6개월	7명	2	5	3	3		13					
	1년6개월~2년	5명	3	3	3	3		12					
	2년~3년	17명	6	11	9	9		35					
	기타	6명	3	4	4	3		13					
연령대별	20대	13명	7	9	8	4	1	29					
	30대~40대초	22명	1	9	14	11	9	35					
	50대 이상	12명	4	5	4	10		23					
	기타	4명	3	8	5	2		18					
합계		51명						105					

### 2. 퇴직금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퇴직금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은 '노숙자대책반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관계기관에 대한 탄원 및 항의', 기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①번과 ②번 문항의 내용 차이가 별반 없지만, 퇴직금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은 대상이 노숙자대책반과 보건복지부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퇴직금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항목	분야		① 관계기 관에 탄원의 및 항의	② 노숙자 대체반 보조 행정소송	③ 복지 관 이 적 자 가 없 다	④ 퇴직금 을 받 아 내 지 않 다	⑤ 기 타	합계
기관별	복지관	30명	12	18	1	1	2	34
	종교시민단체	9명	1	7	1			9
	기타	12명	5	5	1		2	13
직책별	사회복지사	14명	5	8	1	1		15
	생활지도사	19명	5	14	1	2	1	23
	상담원	8명	4	2			2	8
경력별	기타	10명	3	6	1			10
	1~6개월	9명	3	5			1	9
	6~1년	7명	5	4				9
	1년~1년6개월	7명	4	3				7
	1년6개월~2년	5명	1	3			1	5
	2년~3년	17명	4	11	1	1	1	18
연령대별	기타	6명	4	2	2			8
	20대	13명	6	4	1		2	13
	30대~40대초	22명	5	13	2		2	22
	50대 이상	12명	9	7		1		17
합계		51명						56

### 3. 쉼터 입소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하절기 입소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라는 의견에는 대부분 ‘하절기 특수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다음으로는 ‘현재 쉼터시설에 맞게 정원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관별로 보면 복지관은 하절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적 의견이었고, 반면, 종교시민단체는 쉼터시설에 맞게 정원조정이 필요하다는 대안적 의견이 많

쉼터 입소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항목	분야		① 자유의 집 입 소 인 원	② 하 절 기 의 특 수 사 황	③ 정 원 을 현 재 쉼 터 시 설 에 맞 게 재 조 정	④ 노 숙 집 중 지 역 을 소 로 전 환	⑤ 기 타	합계
기관별	복지관	30명	5	12	8	2	5	32
	종교시민단체	9명		3	4	2		9
	기타	12명	1	2	4	1	2	10
직책별	사회복지사	14명	2	5	3	2	2	14
	생활지도사	19명	2	7	7	1	2	19
	상담원	8명	1	3	3	1		8
	기타	10명	2	1	3	1	3	10
경력별	1~6개월	9명	3	2	2	1	1	9
	6~1년	7명	1	4	1	1		7
	1년~1년6개월	7명	1	2	4			7
	1년6개월~2년	5명		1		3	1	5
	2년~3년	17명	1	7	4	1	4	17
	기타	6명	1	1	2		2	6
연령대별	20대	13명	2	4	4	2	1	13
	30대~40대초	22명	2	10	5	2	3	22
	50대 이상	12명	3	5	3	1		12
	기타	4명		2	1		1	4
합계		51명						51

았다. 그리고 경력별로는 각각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연령대별로는 별반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 쉼터 실무자들이 가장 힘든 부분은?

쉼터 실무자들이 노숙인 복지사업에 일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힘든 쉼터식구들을 대하는 문제와 상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낮은 급여’, ‘과다한 근무시



간, '과다한 업무', '운영주체와의 마찰'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율이 낮은 문항이었다. 기관별로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종교시민단체 실무자들이 '낮은 급여'에 대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책별로는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사에 비해 상담원들이 낮은 급여에 대해 힘들어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경력별로는 평균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연령대별로는 30~40대 초가 '낮은 급여'에 대한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무자들이 가장 힘든 부분은? (순서대로)								
항목	분야		① 힘든 업무를 대하는 상당	② 운영주 체와의 마찰	③ 과다한 근무 시간	④ 과다한 업무	⑤ 낮은 급여	합계
기관 별	복지관	30명	16	1	6	4	5	32
	종교시민단체	9명	2	1			4	7
	기타	12명	3	2	2	1	2	10
직책 별	사회복지사	14명	5		1	3	2	11
	생활지도사	19명	10	2	2	1	4	19
	상담원	8명	3		1		4	8
	기타	10명	5	1	3	1	1	11
경력 별	1~6개월	9명	5		2		1	8
	6~1년	7명	2	1	1	0	3	7
	1년~1년6개월	7명	3	1	1	1		6
	1년6개월~2년	5명	2		1	0	2	5
	2년~3년	17명	7	2	1	3	4	17
	기타	6명	1		3	1	1	6
연령 대별	20대	13명	4	1	2			7
	30대~40대초	22명	6	2	3	4	8	23
	50대 이상	12명	8	1	3		2	14
	기타	4명	3	1	1			5
합계	51명						49	

## 5. 앞으로 노숙인 사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노숙인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전망은 '어둡다'는 의견과 '밝다'는 의견이 3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들었다. 기관별로 보면 복지관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종교시민단체는 ①번과 ②번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책별로는 생활지도사들이 '어둡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력별로는 경력이 높아질수록 '밝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체로 모르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의외로 30~40대 초는 '밝다'는 의견이 많았고, 50대 이상은 '어둡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문항은 설문의 차이가 확연하지 않아 객관적 평가를 하기에는 힘들 것이라 판단된다.

앞으로 노숙인 사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항목	분야		① 밝다.	② 어둡다	③ 모르겠다.	④ 기타	합계
기관 별	복지관	30명	10	13	7		30
	종교시민단체	9명	4	4	1		9
	기타	12명	2	2	6		10
직책 별	사회복지사	14명	5	5	4		14
	생활지도사	19명	6	9	4		19
	상담원	8명	3	1	4		8
	기타	10명	3	4	1		8
경력 별	1~6개월	9명		4	5		9
	6~1년	7명	1	5	1		7
	1년~1년6개월	7명	4		3		7
	1년6개월~2년	5명	2	2	1		5
	2년~3년	17명	8	6	3		17
	기타	6명	1	2	1		4
연령 대별	20대	13명	2	5	6		13
	30대~40대초	22명	10	7	5		22
	50대 이상	12명	4	5	2		11
	기타	4명	2		1		3
합계	51명					49	



## 6. 귀 실무자는 앞으로 노숙인 사업에 얼마나 종사할 계획인가?

노숙인 사업에 대한 실무자들의 의지를 확인해 보는 "실무자 근무계획"에 대한 의견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을 계획하고 있는 실무자가 가장 많았다. 이것은 현재까지 실무자들의 평균 근무기간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와 동일하게 '2년 이상' 근무계획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들도 많았다. 그리고 '1년에서 2년 미만', '6개월 이하', '평생'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복지관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많은 반면, 종교시민단체는

귀 실무자는 앞으로 노숙인 사업에 얼마나 종사할 계획인가?								
항목	분야		① 6개월 이하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2년 이상	⑤ 평생	합계
기관 별	복지관	30명	5	8	6	7	3	29
	종교시민단체	9명	1	2	3	2		8
	기타	12명	4	2	2	3	1	12
직책 별	사회복지사	14명	3	5	4		1	13
	생활지도사	19명	3	4	3	5	3	18
	상담원	8명	3	2	1	2		8
	기타	10명	1	1	3	5		10
경력 별	1~6개월	9명	1	3	1	2	1	8
	6~1년	7명	2	2		2	1	7
	1년~1년6개월	7명	1	2	1	2	1	7
	1년6개월~2년	5명		2		3		5
	2년~3년	17명	5	3	6	2	1	17
	기타	6명	1		3	1		5
연령 대별	20대	13명	1	4	3	3		11
	30대~40대초	22명	7	8	2	4	1	22
	50대 이상	12명	1		4	4	3	12
	기타	4명		2	1	1		4
합계		51명						49

'1년 이상 2년 미만'을 계획하고 있는 실무자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직책별로는 별반 차이가 없지만, 사회복지사보다는 생활지도사가 더 오래 근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체로 근무 경력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노숙인 사업에 오랫동안 종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령대별로는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을 계획하고 있는 실무자가 많았다.

금번 창간준비 1호에 실린 '실무자 설문조사'는 객관적 통계자료로서는 자료적 가치가 부족하다. 그러나 주관적 자료로서 실무자들이 참조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 준비가 미흡하고, 조사기간이 짧다 보니 많은 실무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그리고, 설문지 문항에 대한 부분이 개괄적이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실무자들의 다양한 여론을 구분짓기에는 미흡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하며, 다음에는 알찬 내용으로 실무자들의 여론을 모아 나가도록 할 것이다. [42]





## 실무자 쓴소리

요즘 날씨가 더워서 모든 국민들이 비를 고대하고 있는데 하늘도 무심하지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 말이다.

올해는 경제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작년 못지 않게 겨울나기가 어려워질 걸 예상하니 한편으로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걱정부터 앞선다.

98년 10월부터 노숙자 문제에 개입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니 햇수로로는 3년이다 되어 가는데 무엇하나 제대로 해놓은 것 없이 한국 노숙인 문제는 성공적이라 느니, 해마다 하는 소리니 올해도 앵무새처럼 성공적이라고 말할까 두렵다.

무엇이 성공했단 말인가!

거리에 노숙자가 줄어서 성공적인가, 아니면 누구 말처럼 겨울 동사자가 없어서 성공적이란 말인가? 이걸 겨울 동안 이야기고 여름은 서울 시내에 노숙자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희망의 집'은 텅텅 비고 몇 사람 모아놓고 직업교육이니, 자활 프로그램 진행이니, 다 생색내기 정책뿐, 실질적으로 노숙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은 다 쳐제놓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기안만을 검토하니, 진정한 자활은 없고 한숨소리만 높아갈 뿐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무슨 선심정책을 쓸지, 선심도 선심 나뉘이지만, 정권유지를 위해서 선심을 쓴다면, 정책재탕이 아닐까 의심스럽다.

98년 겨울, 실무자들로서는 생각하기도 벅찬 한해였다. 지금이야 '자유의 집'이 있어서 어느 정도 노숙자에게 사정을 해서 '희망의 집'에 보낸다고 하지만 그 당시 는 오리지날노숙자(?)를 '희망의 집'에 입소시키다 보니 자고 나면 피바다요, 오줌

바다였다. 병원응급실에서 날 새우기를 한 달, 공공근로 보냈더니 기관장과 싸워 고, 그 기관장이 직접 전화 걸어 사과를 하라느니 큰소리 나고, 부랴부랴 부장님과 찾아가서 사과하고 나오는데 내가 무슨 팔자인지 정식직원도 아니면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월급도 박봉인데, 사명감 하나로 일해야 하나, 하는 절망감뿐이었고, 사표를 내고 싶은 생각이 들자 이게 바로 지옥을 벗어나는 길이다 생각했다.

더욱 그런 마음을 부채질한 것은 제도화되지 않는 의료서비스, 행정서비스 공무원들이 노숙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일의 한계를 느꼈고, 복지관 사회복지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어차피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것, 누구 하나 따듯한 위로의 말없이, 너에게 월급 주는데 내가 해야지! 그럼, 누가 해야 하나! 하면서 "하기 싫으면 나가면 되지, 무슨 불평이나!"는 냉혹한 말만 나의 존재를 처참하게 했다. 그래도 가끔 식구들 중에서 실무자 마음을 읽고 동기처럼 그리고, 형님처럼 마음을 잡아주었다. 만약 그런 일도 없었다면, 나는 한 달도 못 버티고 떠났을 것이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노숙인 사업이 99년 3월로 종료된다는 구청 사회복지과 직원의 말이 그 당시에는 왜 그리도 반가웠는지(?), 또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를 일이다. 지 밥줄 끊어지는 데 좋아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노숙인 실무자 외에 또 있을까? 그래서 사표 쓰려는 마음을 여러 차례 연기하다 이제까지 왔는데, 여기서 실무자들의 노고를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저 밑에서 끊어오르는 분노가 오금을 저리게 한다. 왜 그랬냐고요, 서울시 방침은 노숙인을 위한 정책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했지만, 쉼터 내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실무자 입장은 전혀 이해하지 않고, 오로지 노숙인들의 말만 믿고 행정을 실시하는 그들그





들그들. 연말이면 다시서기지원센터, 노숙자대책반장만 수고하고, 실무자들은 그냥 허수아비인지 따뜻한 격려사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을 것을, 미련한 사람들은 실무자 위한답시고 연말 가서 상 몇 개 주고 마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노숙인 정책의 현주소다. 노동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또한 그 보수는 적절하게 주어야 함에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노숙인 실무자들이 있다.

하루 꼬박 일하고 상여금, 4대 보험, 퇴직금 등 실무자를 위한 복지정책은 제로 이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짜르라고 하니, 한국사회복지정책이 이런 것인가!

대통령, 보건복지부, 서울시 노숙자대책반 등에 묻고 싶다. 노동의 사각지대를 감독해야 할 노동부는 무엇 하는지, 텔레비전에서 하는 대통령과 만남 시간에 정식으로 묻고 싶다.

실무자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명해 가고 있을 뿐이다. 막아줄 방패막이도 없이 어제는 뇌출혈로 쓰러지고, 오늘은 폭력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노숙자 정책이 어느 누구의 입으로 성공적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하늘은 무심하지 않은지 올해는 퇴직금, 4대 보험 가입 등 흥미진진한(?) 일들이 있었는데 막상 밥상을 받아보니 우리가 먹을 만한 반찬은 없고, 오히려 반찬 수도 줄고, 밥도 줄어 졸속행정의 본모기를 보여주었다.


어떻게 근무를 오래한 사람은 찬밥 신세고, 빨리빨리 나가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으니, 아마도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근무를 오래 할수록 근무성적이 떨어지는가 보다. 오늘은 통계청에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정신나간 소리 말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오늘도 내일도 행해지고 있는 사실은 내가 정신나간 건가 아니면, 노숙자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정신나간 건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복지관 직원도, 다시서기지원센터 직원도, 전실노협 직원도, 서울시 직원도, 더더욱 아니다. 개발에 도토리일 뿐이며, 혹시나 병나면 나 홀로 해결해야 하고, 365일 우리 조상이 쉬라고, 또는 하느님이 쉬라고 정해준 날도 나와서 일하는 역전의 용사(?)들이다. 강철로 만든 로봇 태권브이다. 일인 4역도

모자라서 무슨 만능 텔런트인양,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숭고한 역사적 사명(?)이니, 봉사정신이니, 사명감이니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역겹고 역겨워서 뱉어내고 싶다. 자기가 무슨 사회사업가이고, 자선봉사자인가! 그러려면 자원봉사자 인력뱅크에 등록하지 왜, 여기 와서 일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봉사나 자선 그 자체의 숭고한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쉬는 날 있으면 가까운 양로원에 가서 위문할 수 있는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다. 이제 복지관도 손 놓고 다시서기지원센터도 이렇다 할 정책이 없고, 겨울에 가서 대규모 노숙자 탄생(?)을 기대나 해보심이 어떨지? 실무자는 괴롭다. 그리고 괴곤하다. 소속감도 없이 복지관 일도 하고, 노숙인 사업도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띤, 제소리도 바로 못내는 바보 아닌 바보들이다. 물리학자도 아니면서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지길 기다리다 지쳐서 가고, 또 다른 바보가 다시 와서 사과가 언제 떨어질까 하는 원시인들... 이젠 바로 잡아야 한다. 바로 가야 한다. 외국사례를 배울 것은 배워야 하며, 한 번 몸 바친 노숙사업을 우리 함께 온 힘을 기울여야겠다. 바다는 언제나 거칠다가도 잔잔하다. 하지만, 아래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용솨음쳐 오르면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 우리는 지혜로운 선장과 노련한 항법사 그리고 자질 있는 조타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파도라도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배가 필요하다. 누군가 책상에서 일어나 세상을 한 번 바라보라 했던가! 이제는 실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실무자 쓴소리가 노숙인 정책에 좋은 약이 되길 바란다. 



# '희망의 집' 실무자 선생님들께...

국신호 조직팀장/남부노인복지관/생활지도사

오늘은 쉬십시오

일에 지친 무거운 어깨, 산 나무 그늘 아래 눕히고 오늘은 편히 쉬십시오. 어제까지의 일은 잘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팔베개하고 누워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면서 편히 쉬십시오.

오늘은 쉬십시오

사랑 찾아다니다 지친 발, 오늘은 흐르는 물에 담그고 편히 쉬십시오.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사랑도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 잊으십시오. 그리고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편히 쉬십시오.

오늘은 쉬십시오

주어야 할 돈도 받아야 할 돈도 오늘은 모두 잊어버리십시오. 그 동안 돈 때문에 얼마나 애태웠습니까. 돈의 가치보다 훨씬 많은 것 잃었지요. 오늘은 바닷가 모래밭에 누워 가진 것 없이 자유로운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편히 쉬십시오.

오늘은 쉬십시오

휴대폰도 꺼버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늘은 편히 쉬십시오. 그 동안 말을 하기 위하여 듣기 위하여 얼마나 마음 졸였습니까. 오늘은 입을 닫고 밤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별들이 말을 한다면 온 우주가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침묵의 별들이기에 영원히 아름답지요.

오늘은 쉬십시오

모든 예절, 규칙, 질서, 권위, 양식 모두 벗어버리고 오늘은 편히 쉬십시오. 그 동안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옷을 벗듯 훌훌 벗어버리고 오늘은 냇가 너른 바위에 두 팔 벌리고 누워 편히 쉬십시오.

오늘은 쉬십시오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추억, 모든 아쉬움 강물에 띄워버리고 오늘은 편히 쉬십시오. 흘러가면 사라지고 사라지면 잊혀지는 법, 잊어야 할 것 모두 강물에 흘려 보내고 강 언덕 미루나무 그늘 아래서 오늘은 편히 쉬십시오.

—"오늘은 쉬십시오"라는 시는 <좋은 생각>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고 한 주를 겸허하게 맞이하고 있는 오늘... 샘은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인지 많이많이 궁금하군요. 일하다 보니... 웃다 보니... 울다 보니... 다양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의미 있는 날들이었겠지요?

좋은 일이었음 축하드리고, 어려운 일이었음 격려해드리고, 슬픈 일이었음 위로해드리고, 외로운 일이었음 친구가 되어드리고, 무기력한 일이었음 활력을 불어넣어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선생님들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처럼, 이젠 우리에게도 소중합니다. 어디서든 이젠 선생님의 이름 석자를 듣게 되거나 보게 되면 귀가 열리고 눈이 커지는군요. 아직은 프리챌 커뮤니티에 가입한 뒤 별다른 색깔을 드러내고 계시지는 않지만, 늘 마음으로 삶으로 준비하고 보여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을 모아가고 싶군요.

따뜻하면서도 고요하게...

편지를 받으면 소리 없이 사라지지 마시고 간단한 인사라도 답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네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많이많이... 오늘도 실무자들의 하루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쉬고 있을 테죠? 집에서, 근무지에서, 고향에서... 이왕 쉬시는 거 정말 진하게 푸~욱 쉬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어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음...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노숙인 복지 실무자협의회(준)를 준비하며...

송영팔 노실협 준비위원장/광장복지관/생활지도사

2001년 실무자워크숍은 노숙인 복지 실무자협의회(준)의 모태다.

많은 실무자들은 작금의 노숙인 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해 왔다. 밤과 낮이 따로 없이 혼돈된 일과 속에서도 노실협 태동을 위한 여러 준비위원들의 열정은 정말로 뜨거웠다. 젊은 실무자 선생님들은 부족한 나에게 준비위원장을 권했다.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몇 날 며칠을 어렵고 힘든 시간을 쪼개어 이 모임의 결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가슴 졸이며 서로를 격려했고, 용기를 갖고 외쳐대면서 노실협(준) 사무국을 조직하였다.

얼마나 많은 실무자 동지들이 동참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방해 세력은 없는가?

우리는 진정해낼 수 있겠는가?

노숙인들을 단지! 먹이고, 잠 재우고, 공공근로만으로 만족케 할 것인가?


따뜻하고 축적된 임상기술을 가진 실무자들이 '희망의 집'에서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진행 과정 가운데 많은 걸림돌이 존재했고, 좌절과 회의에 빠지는 어려움도 있었다. 목살도 잡히며 곤욕도 치렀지만 결국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우리들이 아닌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66명의 실무자들이 프리첼 '노숙인 실무자 모임'에 가입하여 용기를 주었다. 또한 그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힘이 실렸다.

앞으로 갈 길은 멀고 험하다. 이 시점에서 현장의 실무자들은 분기점을 찾고 이정표를 정해야겠다. 노실협을 준비하며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다.

1. 모든 실무자들은 지금 당장 떠날지라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꼭 동참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시설장과 모든 실무자, 종사자들은 '희망의 집' 식구를 바라볼 때 스티그마를 버려야 한다.
3. 실무자 자신들의 권익보호는 도전하여 반응을 얻어내는 강한 용기와 인내를 요구한다.
4. 공감하는 모든 사회복지체계를 개발하여 함께 동참시켜 사회적 낙비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5. 노숙인 복지의 주체는 그들 자신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희망의 집' 실무자들의 순수한 가치와 젊은 열정이 저 어둠 속, 썩어가는 곳에 서 작은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란다. 



## 노실협에서 알립니다

### ☞ 5월 1~2일 노숙인 실무자 MT

총 13명의 실무자들의 참석하여 실무자 모임의 조직형태와 사업내용, 친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 5월 12일~노숙인 복지 실무자협의회준비위 발족

19명의 실무자 선생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준비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위촉하고, 노숙인의 복지와 실무자들의 권익과 역량강화를 위해 노숙인 복지 실무자협의회 준비위를 발족시켰다.

### ☞ 5월 22일~사무국 1차 회의

사무국은 정책팀, 총무팀, 조직팀, 교육팀, 편집팀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팀별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 ☞ 5월 29일~사무국 2차 회의

수도권 지역을 4개 지부로 조직키로 하고, 노실협(준) 창간준비 1호를 6월 중순경에 발간토록 하였으며, 퇴직금 문제에 대한 방안을 협의 함.

### ☞ 6월 5일~사무국 3차 회의

다시서기와 전실노협과의 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노실협 준비위원가입신청서를 받기로 함. 조직지부결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함.

### ☞ 6월 9일~전실노협, 다시서기지원센터, 노실협(준) 간담회

사무국 인사 및 사업소개, 노숙인 인권문화제, 학술포럼 연대행사 제안.

### ☞ 6월 12일~사무국 4차 회의

회비납부방식을 프리첼CMS방식으로 납부토록 하며, 6월 19일 노실협 2차 준비위원회 개최키로 함. 2차 준비위원회에서는 노숙인인권문화제, 노숙인복지운동과 노숙인 리더십과정, 실무자교육워크숍, 월간책자 발간과 기타 안전에 대한 것을 협의토록 함.

### ☞ 6월 19일~노실협 2차 준비위원회

노숙인인권문화제를 10월 중순에 개최키로 하고, 월간책자는 '떨꺼둥이'이라는 제목으로 6월에 발간키로 함. 그리고 '노숙인복지 리더십과정' 교육을 7월부터 시작하기로 함.

## 제1차 노숙인 복지 리더십 과정

### ■ 목적

1. 「노숙인 복지 리더십 과정」 교육프로그램은 희망을 주는 생산적 노숙인 복지의 밑거름으로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2. 「노숙인 복지 리더십 과정」 교육프로그램은 신자유주의의 폭력적 본질을 간파하고 21세기 복지한국, 21세기 노숙인 복지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3. 「노숙인 복지 리더십 과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문제와 노숙인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 일정

1. 기 간 : 2001.07.18.~08.22. 매주 수요일 15:30~18:00(워크숍 2001.08.30.~31.)
2.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3. 참가비 : 10,000원
4. 대 상 : 노숙인 복지 사업 실무자

### ■ 프로그램

일 정	내 용	강 사	
7월 18일	전략적 지도자의 길 -노숙인 복지의 리더십-	박재천	
7월 25일	사회복지운동과 NGO	문진영	
8월 2일	소수자 운동과 인권 -노숙인, 인권 그리고 나! 활동가-	이주원	
8월 9일	주택 문제! 노숙인 자활의 장애요인인가	서종균	
8월 16일	아름답고 새로운 노동세계 만들기	귀농! 노숙인 자활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정호
8월 22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외국의 사회적 기업 사례-		신명호
08.30. ▶ 08.31.	워크숍	함께 하는 노숙인 복지운동	교육팀

■ 주최 : 전실노협, 다시서기지원센터, 노실협(준) 준비위원회, 노숙인복지실무자협의회(준)



## 노숙인 복지 실무자협의회(준)란?

노실협(준) 편집팀

노숙인복지실무자협의회준비위원회 이하 노실협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간에 많은 워크숍을 통해 보았듯이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은 배제된 채 교수들과 공무원들의 의견만 받아들여지고 논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의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0년 12월 '실무자 정책 토론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리를 열고 보니, 실무자들의 의견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 3월 '실무자 워크숍'을 통해 실무자들의 의견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구체화되었습니다.

그곳에 참여한 90여 명의 실무자들이 함께 토론한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실무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이 필요함을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터넷상의 프리챌에서 "노숙인 실무자 모임"을 만들어 현재 66명이 가입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2일, 뜻 있는 실무자 선생님들이 노숙인 복지 실무자협의회 준비위원회 1차 모임을 통해 노숙인 복지 실무자협의회(준)를 발족시켰습니다. 준비위원장으로는 광장복지관에서 생활지도사로 일하시는 송영팔 선생님이, 사무국장으로는 번3 복지관에서 생활지도사로 일하시는 박용범 선생님이 각각 추대되었고, 사무국(8명)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1회의 사무국회의를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4차의 사무국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노실협을 실무자 선생님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실협은 "노숙인 복지"라는 큰 뜻을 같이하는 실무자들의 자발적 모임입니다.

노실협은 노숙인의 인권,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와 처우개선, 또한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결된 지역사회 운동을 주요사업으로 합니다. 또한, 실무자간의 친목도모와 쉽터간 정보공유를 통해 실무자의 번아웃방지과 노숙인의 실질적 복지서비스를 도모합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노숙인 시설제도화와 유형화에 접근하고 현장실무자의 의견이 정책결정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개입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통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실협은 전실노협과 다시서기지원센터와 연대하는 실무자들의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조직입니다.

앞으로 노실협(준)을 통해 실무자 선생님의 수많은 소리가 하나의 큰 목소리가 되어 노숙인의 참된 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실무자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노숙인 복지 실무자협의회에 가입하려면?

1. 인터넷 홈페이지 프리챌([www.freechal.com](http://www.freechal.com))에 들어가서 커뮤니티 검색에서 "노숙인 실무자 모임"을 검색하여 가입하면 정회원인 된다.
2. 노실협(준) 국신포 조직팀장(016-650-8784)을 통해 노실협 준비위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치담에 제출하면 된다.
3. 월 회비는 일만 원이며, 납부방식은 프리챌에 가입한 회원은 커뮤니티에서 CMS 방식으로 납부하면 되고, 프리챌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은 국민은행 계좌번호(029-01-0378-586, 예금주:김지선, 노실협)로 매달 말에 입금하면 된다.



